

노인부양의 불일치 :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및 세대간 불일치

(Intragenerational and Intergenerational Discrepancies in Eldercare Attitude and Behavior)

김 상 욱*

I. 연구의 목적

1999년 12월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6.8%(통계청, 1999)로써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부양의 문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 부양체계의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적 부양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장인협·최성재, 1994)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는 상당 부분 가족구성원들의 책임으로 간주됨으로써 급증하는 부양부담을 개개 가족들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가족내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세심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의 하나는 아마도 노부모부양을 둘러싼 제반 불일치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세대내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세대간에서도 나타날 개연성이 농후한데, 구체적으로 세대내 불일치란 부양을 제공하는 주체(즉, 부양자) 혹은 부양을 제공받는 객체(즉, 피부양자) 각 세대내에서 부양에 대한 태도와 행위가 서로 괴리를 보이는 현상을 지칭하며, 세대간 불일치란 부양태도가 세대간에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그리고 부양행위에 대한 인지상태가 세대간에 격차를 보이는 현상을 지칭한다.

부연컨대, 부양자이건 혹은 피부양자이건 간에 각 세대는 노부모부양을 둘러싼 태도와 행위 사이에 일관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태도는 현대적이면서 실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자부¹⁾가 있는가 하면 매우 전통적인 부양가치관을 보유하면서 자부의 부양행위를 부정적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 방법론에 관한 추후의 논의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본 연구에서 부양자는 곧 자부(子婦)를 그리고 피

으로만 인식하는 노인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²⁾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intragenerational discrepancy in eldercare attitude and behavior)라고 부른다. 한편, 세대간 차이에 초점을 두고서 세대와 세대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각 세대가 보유하는 부양태도가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양행위에 대한 인지상태 또한 상당한 괴리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부는 매우 현대적 의식을 보유함에 비하여 노인은 매우 전통적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부의 주어진 부양행위에 대해서 자부 자신은 적극적인 수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자평함에 비해서 막상 피부양 노인은 충분치 못한 혹은 마지못한 소극적 수행일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인 인지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때, 전자의 현상을 가리켜 ‘부양태도의 세대간 사실적 불일치’(intergenerational factual discrepancy in eldercare attitude between caregivers and care-receivers)라고, 그리고 후자의 현상을 가리켜 ‘부양행위의 세대간 인지불일치’(intergenerational perceptive discrepancy in eldercare behavior between caregivers and care-receivers)라고 한다.³⁾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형태의 불일치 가운데 둘째, 즉 부양태도의 세대간 사실적 불일치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수많은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발견(이상규, 1983; 최성재, 1984, 1995; 임종권 외, 1985; 박인덕, 1989; 서병숙·이신숙, 1990; 이가옥 외, 1990; 한은주·김태현, 1994)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즉,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그리고 부양행위의 세대간 인지 불일치-와 관련하여서는 극히 일부⁴⁾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이제까지 어떠한 논의 및 발견도 제

-
- 부양자는 시부모(媿父母)를 지칭한다. 노인에 대한 가족내 주부양자 혹은 부양전담자(primary caregiver)가 딸인 경우가 대부분인 서양사회(Brody, 1990; Abel, 1991)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계직계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동양사회에서는 아들과 함께 부양의 공유된 책임을 부여받는 자부가 전통적으로 가정내 노부모부양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양전담자이다(최재석, 1982; 한남재, 1989; 성규탁, 1995).
- 2)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혹은 결과변인)은 부양태도(caregiving attitude)와 부양행위(caregiving behavior)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부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보다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부양태도가 부양자가 보유하는 태도일 수도 있으며 피부양자가 보유하는 태도일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양행위 또한 부양자에 의하여 제공된 실제적 행태에 대한 부양자 자신의 인지상태일 수도 그리고 그에 대한 피부양자의 인지상태일 수도 있다.
- 3) 세대간 불일치를 논함에 있어서 부양태도의 불일치는 “사실적” 불일치라고 그리고 부양행위의 불일치는 “인지 혹은 인지적” 불일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양태도에 있어서의 불일치가 부양자와 피부양자 각자가 보유하는 당위적 의식 혹은 가치관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factual) 차이임에 비하여 부양행위에 있어서의 불일치는 부양자에 의하여 제공된 객관적 실제로서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각기 어떠한 인식을 보유하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인지적’(perceptive) 차이이기 때문이다.
- 4) 김상욱(1998, 1999)은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증적 분석결과를 2회에 걸쳐

시된 바 없다. 특히, 부양행위의 세대간 인지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실,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노부모부양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부양자 혹은 피부양자 가운데 어느 한편으로부터만 수집된 일방적 자료를 사용할 뿐 양편 모두를 대상으로 수집된 쌍방적 자료를 대비시켜 사용하는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타의 연구주체와 달리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는 부양의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이 어떠하며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양자의 해석 혹은 인지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Bengston and Schrader, 1982; Cicirelli, 1983)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일정한 대비되는 쌍(matched pairs)을 단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쌍방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의 연구설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동안 한국의 학계에서 세대내·세대간 불일치 현상이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연구성과 또한 극히 미미한 것은 이 현상의 보편성 및 학술적·임상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특히, 노부모와 성인딸 사이에 비교적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서구사회에서와 달리 시부모와 자부간의 불균등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경우에 불일치 현상의 정도 및 양상은 매우 현저하며, 더불어 이로 인하여 유발되는 제반 문제들(예, 부양스트레스, 가족관계의 손상, 심리적 손상, 가족부양의 효율성 저하 등) 또한 특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세대내·세대간 불일치 현상이 보편적인 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 이는 가족부양에 의한 사적 부양체계로 특징지어지는(박재간, 1985; Sung, 1991) 우리 나라 노인부양 기제의 작동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학술적 진단을 제시하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그러한 학술적 진단결과는 실천적 처방으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고부갈등을 포함하여 부양자-피부양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상자료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

상기한 바의 불일치 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나름대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연구과제이나 이는 至難한 과제로써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초점은 위와 같은 불일치의 원인 규명에 있기보다는 불일치 현상이 실재한다(Nowak and Brice, 1983; Zweibel and Lydens, 1990; Walker et al., 1991)는 가정하에서 그같은 불일치의 정도(degree)가 과연 어떠하며, 양상(pattern)이 어떠한고, 불일치와 연관되는 특성들(characteristics or correlates)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부양자 세대에 국한된 분석이었을 뿐 피부양자 세대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연구문제 1] 부양자 및 피부양자 각 세대내에서 나타나는 부양태도와 부양행위 사이의 차이는 각기 어느 정도이며, 그 차이의 양상은 어떠한고, 차이의 양상과 관련을 지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소유하는 부양태도에 있어서의 세대간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그 차이의 양상은 어떠한고, 차이의 양상과 관련을 지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부양자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부양자 자신이 인지하는 바의 내용과 피부양자가 인지하는 바의 내용 사이의 세대간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그 차이의 양상은 어떠한고, 차이의 양상과 관련을 지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불일치의 정도란 단순히 차이의 절대량을 뜻하며, 불일치의 양상이란 상대적 차이⁵⁾의 유형을 비교하고 아울러서 노인부양의 하위차원별(정서적 부양, 경제적 부양, 신체·서비스 부양) 차이의 유형을 비교분석함을 의미하며, 불일치의 특성이란 하위차원별 차이를 포함하여 상대적 차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부양가족내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즉, 유관요인-을 파악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들과 관련하여 서구사회에서 수행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이기보다는 경험적·실천적 연구성향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인과적 가설이 제시되고 제시된 가설이 검증되는 방식의 연역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절대다수의 연구들이 경험적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임상적 해결책이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이 분야의 연구들이 이제껏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 지향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본 연구 또한 경험적·실천적 연구지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두기 위한 것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이론 및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으나, 확립된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인과관계를 설정하려 하기보다 우선 경험세계에 존재하는 바의 실증적 사실(empirical facts)을 있는 그대로 규명해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Merton, 1968).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적 사실이 임상적·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물론이요, 그것이 결국은 차후의 이론구성을 위한 밑거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함의(implications)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5) 절대적 차이(absolute difference)가 불일치의 방향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불일치의 절대량만이 고려되는 차이라면 상대적 차이(relative differences)란 불일치의 방향에 따라 양분된 차이를 지칭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노년학 연구에서 부양자-피부양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가족내 노인부양이 부양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부양자와 피부양자 사이의二者관계(dyad relationship)에서 만일 어느 편도 의식과 행태간의 괴리를 경험하지 않거나 또는 상호간 의식의 격차나 행태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등의 문제시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현상과 관련된 한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실제적 행위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기 마련인 것과 마찬가지로(Fishbein and Ajzen, 1975; Schuman and Johnson, 1976; Andrews and Kandel, 1979),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이 해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의식이나 행태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Mead, 1934; Blumer, 1969). 즉, 사회현상에 연루된 주체의 내부적 불일치 뿐 아니라 주체와 객체간의 불일치 또한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 사실인데, 노부모부양의 경우 문제는 이 같은 불일치가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각종 심리적 손상을 초래한다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제반 불일치는 부양자에게는 심각한 부양스트레스를 유발하며(Zarit et al., 1980; Noelker and Poulshock, 1982; Zarit and Zarit, 1982; Poulshock and Deimling, 1985; Sheehan and Nuttall, 1988) 피부양자에게도 여러 가지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 예, 우울, 불안, 사기저하 등)를 유발하게 된다(Seelbach and Sauer, 1977; Schlesinger et al., 1980; Nowak and Brice, 1983; Hauser and Beckman, 1984). 더구나, 이와 같은 심리적 손상은 부양자 및 피부양자 각자의 내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양자간의 대인관계에 손상을 초래하며(Lazarus and Folkman, 1984) 중국에는 가족부양 기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Autonucci, 1985)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불일치 현상들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6) 이하에서 부양태도의 세대간 사실적 불일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양태도-부양행위의 세대내 불일치에 대한 논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부양태도-부양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Intragenerational Discrepancy in Eldercare Attitude and Behavior)

노부모부양에 대한 심리적 의식과 실제적 행태 사이의 불일치 현상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가운데 논의의 초점을 어느 편에 두는가에 따라 불일치의 방향이 상반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부양자에게 초점을 둘 경우에는 현대적 의식과 적극적 수행이 공존하는 상태의 불일치가 예견됨에 비하여, 피부양자에게 초점을 둘 경우엔 전통적 의식과 소극적 수행이 공존하는 상태의 불일치가 예견된다.

먼저, 부양자에게 현대적 의식과 적극적 수행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노부모부양에 대한 전래의 관념 및 가치관이 상당 부분 퇴색되었음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의식은 이미 현대적인 유형의 의식에 의하여 대체되었음에 비하여 이 같은 의식이 일관된 실제 행동으로까지 곧바로 이어지기까지는 문화적 관습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만일 자부가 자신의 내면적 의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여 일관된 행태를 나타낼 경우, 그러한 행동은 문화적 관습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로 인하여 시부모와 남편을 포함하여 여러 시가식구들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부 자신이 익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부는 자신의 내면적 의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기보다는 가족내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의 부양을 제공하거나, 혹은 최소한 자신의 내면적 의식보다는 더 적극적인 부양수행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로 필자의 실증적 선행연구들(1998, 1999)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이 타율적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임종권 외(1985)의 진단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양자의 경우와 반대로 전통적 의식과 소극적 수행이 공존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피부양자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는 사실과 부양자의 부양수행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자부에 비하여 시부모가 더 전통적 가치관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기존연구들(최성재, 1984; 이가옥 외, 1990; 통계청, 1999)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 피부양자의 부양기대감이 부양자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사실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논의 및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요컨대, 부양태도-행위의 불일치 현상은 부양자 및 피부양자 각 세대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일치의 정도가 양자 가운데 어느 편에서 더 심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다분히 경험적인 문제로서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

2. 부양행위의 세대간 인지불일치

(Intergenerational Perceptive Discrepancy in Eldercare Behavior)

부양행위를 둘러싼 세대간 인지불일치 현상은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의식차이 및 역할기대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노부모부양에 대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각기 상이한 가치관을 보유하며 서로에 대하여 상이한 역할기대를 보유함으로써(Kerchhoff, 1966; Seelbach and Sauer, 1977; Hauser and Beckman, 1984; Shaw et al., 1997) 인하여 양자는 동일한 행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지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밑바탕에는 노부모부양이 부양자 및 피부양자에게 심리적 손상을 유발하는지의 여부 및 정도는 부양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그 같은 객관적 사실을 당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Lazarus and Folkman, 1984; Townsend and Poulshock, 1986) 상징적 상호작용론적(symbolic interactionism) 전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곧 부양행위의 적극성의 정도 그 자체는 심리적 손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부양행위의 적극성과 관계없이,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주어진 부양수행에 대하여 유사한 인지상태를 보일수록 심리적 손상이 적으며, 반대로 당사자들의 인지상태가 상이할수록 심리적 손상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양행위가 아무리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인지의 조화를 유지할 경우에는 양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손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며, 역으로 부양행위가 아무리 적극적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인지부조화를 유지할 경우에는 심리적 손상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부양수행에 있어서 부양을 제공하는 주체와 부양을 제공받는 객체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인지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Schlesinger와 그의 동료들(1980)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양자인 딸은 나름대로 노인이 원하는 방식의 부양을 제공한다고 생각함에 비하여 막상 노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부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리(psychological well-being)가 저해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Weishaus(1979)도 피부양노인과 주부양자 사이에 나타나는 상당한 정도의 인지불일치를 실증적으로 밝혀냈으며, 바로 이 같은 인지불일치가 피부양노인의 봉양기대감(filial expectations)과 사기(morale) 사이의 역상관관계(Seelbach and Sauer, 1977; Hauser and Beckman, 1984)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인지불일치는 부양가족내의 제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과 관련을 지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세대간 인지불일치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진 특성들은 피부양자의 교육수준, 연령, 건강상태, 동거관계 등이다. 즉,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열

악하고, 부양자와 동거하는 피부양자일수록 인지불일치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reas, 1977; Matthews et al., 1989; Walker et al., 1991). 이처럼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유관요인들은 대체로 피부양자의 기능상태(functional status)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를 대변하는 변인들이며 또한 불일치의 내용도 예외없이 절대적 불일치에 관련된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지불일치의 유관요인들은 결코 이들에 그치지 않으며 또한 한국사회에 고유한 유관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보다 폭넓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또한 상대적 불일치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양자의 여타 특성들(즉, 성별, 거주지역, 종교,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의존관계, 재산상속, 재산, 수입, 외출) 뿐 아니라 부양자가 지니는 특성들(즉,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종교, 자부서열, 취업, 가구원수, 의존관계, 재산, 수입, 가족관계의 질)까지도 포괄한 상태에서 인지불일치와의 연관성에 대한 폭넓고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부양행위에 대한 세대간 인지불일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제기되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부양자 혹은 피부양자-의 인지가 객관적 실체에 더 접근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로부터의 주관적 응답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로 제공되는 바의 부양행태를 연구자가 편견없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수많은 시간상·관리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집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소 각도를 달리 하여 대체로 어느 편이 어떠한 방식의 인지성향을 나타내는가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부양자와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의존도(dependency)를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부양자의 입장에서는 피부양자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의존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피부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다지 심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의존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Dowd, 1975; Jonas and Wellin, 1980; Noelker and Poulshock, 1982; Cicirelli, 1983; Townsend and Poulshock, 1986; Zweibel and Lydens, 1990). 이 상태에서 누구의 인지가 실상에 비교적 더 가까운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피부양자보다는 부양자의 인지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견해(Jonas and Wellin, 1980; Nisbett and Ross, 1980; Townsend and Poulshock, 1986; Bowers, 1987; Zweibel and Lydens, 1990)가 지배적인데, 그 주된 이유로는 부양자-피부양자간의 교환관계에서 부양자가 피부양자의 의존도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보상보다 피부양자가 자신의 의존도를 과소평가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크다(Dowd, 1975)는 사실이 지적된다. 피부양노인이 의존도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보상은 특히 부

양자와의 교환관계가 호혜적(reciprocal)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불균등하게 형성될 경우 더더욱 커지게 된다. 피부양자보다는 부양자의 인지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에 대한 또다른 이유로 Bowers(1987)는 피부양노인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부양수행(예, 노부모가 약을 복용했는지를 점검하는 등의 서비스)을 부양자가 제공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부양자의 인지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할 가능성은 서구사회에서보다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자부의 현재적 부양을 자신이 과거에 자녀세대에게 제공하였던 부양의 대가로 받는 지극히 당연한 보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자부의 부양수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특별히 현저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미 언급되었듯이, 본 연구의 조사단위는 부양가족⁷⁾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내의 부양자(자부)와 피부양자(시부 혹은 시모)를 결합한 쌍(matched pairs)-인데, 피부양자와 부양자에 대하여 각기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이 적용되었다.

먼저, 피부양자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대상을 “현재 자부를 최소한 한 명 이상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해당 자부가 아들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자부는 아직까지 자신의 자부(즉, 피부양자의 손부)를 맞지 아니한 주부”로 한정하였다. 즉, 자부가 없는 사람들, 60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부가 이혼·별거·사별 등의 사유로 아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손부를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 노인이 조사 당시에 해당 자부와 같이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 배제기준이 되지 않아서 자부와 동거하는 노인 뿐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노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피부양 노인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부부 모두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가운데 한편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부양자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대상이 “현재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여성으로써, 시부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며, 본인은 아직까지

7)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단위는 가구(household)가 아닌 가족(family)이다. 생계 중심의 개념인 가구에 비하여 혈연 중심의 개념인 가족이 본 연구에 적합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며느리를 맞지 아니한 가정주부”로 한정되었다. 즉, 조사 당시에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 20세 미만 6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 시부와 시모가 모두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여 이미 며느리를 본 사람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에도 시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서 시부모 가운데 한편만 생존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세부적 기술에 앞서 부양가족내 부양자와 피부양자 가운데 어느 편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양편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조사할 경우 서로를 의식하여 응답의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한편의 응답이 다른 편의 응답내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사된 편으로부터 차후에 조사될 편에 대한 자료수집 정보(즉, 성명 및 연락처)를 획득하려는 계획을 설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어느 편을 먼저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부양자를 먼저 조사한 후 연이어 부양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전략이 채택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표집을 위한 표본틀(sampling frame)의 확보에 있어서 피부양자(노인)의 표본틀을 확보하는 것이 부양자(자부)의 표본틀 확보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피부양자를 먼저 조사할 경우가 부양자를 먼저 조사할 경우에 비하여 조사대상자의 상실(subject attrition)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 저하를 방지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수집 절차를 연차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장성, 나주, 담양)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들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포함된 표본틀이 확보되었다.

단계 2. 실제로 조사에 포함될 노인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확보된 표본틀을 바탕으로 각 지역을 행정구분에 따라 5개구 및 3개군으로 층화시킨 후 각 층(strata)별로 인구비례의 쿼터를 배정하고 최종적으로 무작위표본을 선정하는 방식의 층화표본(stratified sample)이 추출되었다.

단계 3. 추출된 노인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방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s)가 1999년 실시되었다. 조사는 연구자로부터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조사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사전에 전화로 조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약속을 정하고서 노인을 방문하였다. 한편, 해당 노인에게 여러 명의 자부가 있을 경우 노인과 면접시 구체적으로 어떤 자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인가하는 문제-이 문제는 추후에 조사될 자부를 선정하는 문제이기도 함-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노인이 조사 당시에 동거하고 있는 자부가 있으면 그 자부를 선정하고 동거하는 자부가 없으면 노인과의 접촉(대면접촉 및 전화접촉 등)빈도가 가장 높은 자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들 가운데 상기한 바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인들, 그리고 연령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혹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응답이 어려운 노인들 그리고 응답을 거부하거나 혹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노인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계 4. 노인과의 면접과정에서 파악된 해당 자부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자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노인조사용 설문과 동등한 형태를 지녀서, 설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고 단지 부양과 관련한 대상이 누구(부양자 혹은 피부양자)인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노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자부에 대한 조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부양가족내에서 자부에 대한 조사는 노인조사가 실시된 약 1개월 후에 실시되었다. 노인조사와 달리 자부조사를 위해서는 방문면접이 아닌 전화면접(telephone interviews)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자부조사의 경우 전화면접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인의 경우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화면접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됨에 비하여 자부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약이 거의 없다. 또한, 자부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및 인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따라서 방문면접을 실시하기 위해선 심각한 시간적·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동시에 고려되었다. 조사대상 자부들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응답을 연속적으로 거부한 경우는 제외하고, 노인과 자부가 모두 다 응답한 가족들만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socially desirable responses)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서로 대비될 수 있는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조사원으로 하여금 양자의 응답내용을 조사과정에서 혹은 조사완료 직후에 수시로 교차확인(cross-validation)하도록 하고 혹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케어묻기(probing)를 재차 시도하도록 하였다.

3. 변인측정

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인들은 부양자 혹은 피부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로서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특별히 측정방법에 대하여 상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구체적 설명을 요하는 몇몇 변인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의존관계는 자부와 시부(또는 시모)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편이 전반적으로 더 의존(정서적, 경제적, 신체·물리적 의존 포함)하는 편인지를 각기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피부양자의 건강상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정도를 노인과 자부 각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상호 혼합한 변인(composite variable)으로 구성하였고, 세대관계의 질은 노인과 자부부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각자가 평가한 결과를 혼합하였으며, 재산은 노인부부와 아들부부 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 및 동산의 현 시가로, 그리고 수입은 노인부부와 아들부부 각 가구만의 연평균 총수입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인인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는 각기 노인부양의 세 가지 차원들을 각기 5문항씩으로 측정하는 15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척도를 제시하고서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상호 혼합한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미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부양태도와 부양행위를 측정하는 척도는 본질적으로 대등한 척도로서 노인부양이라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당위적 의식과 실천적 행태의 차이로 구분·조각화되었으며, 부양을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객체의 역할차이를 구분하여 자부에게는 시부(모)를 향한 자신의 의식 및 실제 행태를 응답하게 하고 노인에게는 자부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식 및 자부의 실제 행태를 응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들은 복수에 걸친 필자의 경험적 연구들(1998, 1999)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측정속성(psychometric properties)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비교적 간단명료하여서, t-검증 및 상관관계(product-moment correlation) 위주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비교집단들간의 평균의 차이(각 세대내의 부양태도-부양행위의 평균차; 세대간 부양태도의 평균차 및 부양행위의 평균차)를 검증함에 있어서는 t-검증이 시도되었으며, 불일치와 관련되는 유관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해당 변인들간의 피어슨 상관관계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고 그 유의도가 검증되었다.

IV. 결 과

[연구문제 1]: 부양태도-부양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부양태도와 부양행위 사이의 불일치 현상은 부양자 및 피부양자 각 세대내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양자 세대내 부양태도-부양행위의 불일치

자부의 경우 부양태도는 현대적임에 비하여 부양행위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부양의 하위차원들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부의 태도 가운데서는 경제적 부양태도가 가장 현대적이고 정서적 부양태도가 가장 전통적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자부의 행위 가운데서도 경제적 부양이 가장 소극적이고 정서적 부양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의 정도는 다름 아닌 정서적 부양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였다. 여하튼, 자부내 부양태도와 부양행위 사이의 전체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1$), 양자간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예상했던 것처럼 의식과 행태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로써, 자부내에서 노부모부양에 대한 현대적 의식과 적극적 수행이 공존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부양태도와 부양행위 사이의 불일치의 정도만을 보여줄 뿐 불일치의 양상 및 특성은 나타내주지 못한다. 이를 위하여 상대적 차이에 대한 분석을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과 결부시켜 시도하였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보유태도에 비해서 적극적인 부양을 수행하는 자부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부양수행을 하는 자부들의 수보다 3배 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하위차원들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정서적 부양의 경우에 특별히 심하고 경제적 부양의 경우엔 비교적 덜 심한 편이었다.

먼저, 태도보다 행위가 적극적인 자부들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이들이 부양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았다. 이를 다시 부양의 하위차원들별로 구분하여 보면, 저연령의 자부들은 정서적 부양수행과 신체·서비스 부양수행에 있어서 특히 적극적이고, 고학력의 자부들은 신체·서비스 부양수행에 있어서 특히 적극적이며, 시부를 모시는 자부일수록 신체·서비스 부양을 특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저연령의 노인을 모실수록 정서적 부양과 신체·서비스 부양을 특히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고학력의 노인을 모실수

록 신체·서비스 부양수행에 특히 적극적이고, 배우자가 생존해 재산 노인을 모실수록 정서적 부양이 특히 적극적이었다. 다음으로, 태도보다 행위가 소극적인 자부들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이들은 학력이 낮고 농촌에 거주하며 노인과 동거하고 있고 노인의 가구원수가 많았다. 다시 하위차원들별로 구분해보면, 농촌거주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특히 소극적이며, 소유재산이 적은 노인에 대한 정서적 부양이 특히 소극적이었다.

요컨대, 태도보다 적극적인 부양수행은 주로 저연령·고학력의 노인들을 두고 있는 저연령·고학력의 자부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들의 정서적 부양 및 신체·서비스 부양에 있어서 현저하였고 또한 시부에 대한 신체·서비스 부양 및 유배우노인에 대한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냈다. 반대로, 태도보다 소극적인 부양수행은 주로 노인을 같이 모시고 사는 대규모가구의 저학력 농촌자부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이었는데, 농촌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및 재산이 없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소극적이었다.

2) 피부양자 세대내 부양태도-부양행위의 불일치

피부양노인의 경우 대체로 전통적인 부양가치관을 보유하면서 자부의 부양수행을 비교적 적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위차원별로 구분했을 때, 노인의 의식 가운데서는 정서적 부양이 가장 전통적이었으나 자부의 부양수행에 대해선 신체·서비스 부양을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자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경우에도 의식-행태간의 괴리는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 가장 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내 의식과 행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만($p < .001$), 이들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양자부들에게서 의식과 행태간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부양노인들 역시 내부적으로 자신의 보유의식과 자부의 행태 사이에서 심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인의 보유의식과 자부의 행태에 대한 인지는 각기 무관한 별개의 현상임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부양자의 세대내 불일치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에게서도 부양태도와 부양행위 사이의 불일치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상대적 차이를 위주로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자신의 의식과 비교하여 볼 때 자부의 부양수행이 적극적이라고 평가하는 노인들보다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는 노인들이 더 많았다. 노인들의 이와 같은 평가는 경제적 부양이나 신체·서비스 부양에서보다는 정서적 부양에서 특히 더 두드러졌다.

우선, 의식에 비하여 부양수행을 적극적이라고 평가하는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재산상속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위차원별로는 노인의 성별 및 연령이 경제적 부양과 관련을 나타내,

저연령의 시모일수록 자부의 경제적 부양수행을 특히 적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보유 의식에 비해 부양수행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는 노인들은 대체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세 가지 하위차원들 모두에서 두드러졌으며, 아울러 저학력의 자부가 제공하는 신체·서비스 부양을 특별히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고, 건강이 열악하고 외출을 안하는 노인들일수록 자부의 정서적 부양을 특히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요컨대, 자부부에게 재산상속을 예정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 자신의 의식에 비해 자부의 부양수행이 적극적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저연령의 시모일수록 자신에 대한 경제적 부양수행이 적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저학력 노인들은 자신의 보유의식에 비해 부양수행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 가지 하위차원들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저학력 자부들의 신체·서비스 부양 및 병약하고 외출을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연구문제 2]: 부양태도의 세대간 사실적 불일치

전술한 바 있듯이, 자부는 현대적인 부양태도를 지님에 비하여 노인은 다분히 전통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자부의 태도 가운데서는 경제적 부양태도가 가장 현대적이고 정서적 부양태도가 가장 전통적임에 비하여, 노인의 태도 가운데선 정서적 부양태도가 가장 전통적이고 신체·서비스 부양태도가 가장 현대적이었다. 세대간 의식의 차이는 정서적 부양이나 신체·서비스 부양에 있어서보다는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 특히 현저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부와 노인 사이의 부양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p < .001$), 양자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양태도에 있어서 자부와 노인 사이의 세대간 불일치가 예상대로 실재할 뿐 아니라 자부의 의식과 노인의 의식은 각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위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부의 태도와 노인의 태도간의 불일치의 양상 및 특성과 관련한 상대적 차이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자부보다 노인이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유한 가족의 수가 노인보다 자부가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유한 가족의 수보다 3배 이상 더 많았다. 자부에 비해 노인의 태도가 더 전통적인 경우는 특히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 현저하였다.

먼저, 자부에 비하여 노인이 더 전통적 태도를 보유한 가족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자부가 저연령이고 자부부의 수입이 적으며 부양대상이 시부이었다. 하위차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부에 비해 노인이 전통적인 의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저연령 자부들의 경제적 부양 및 신체·서비스 부양에서, 고학력 자부들의 경제적 부양에서, 세대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의 정서적 부양에서,

그리고 시부에 대한 정서적 부양 및 신체·서비스 부양에서 특별히 많았다. 다음으로, 노인보다 자부의 의식이 더 전통적인 가족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지니는 특성은 없었으나, 하위차원별로는 두 가지 특성이 발견되었다. 즉, 만며느리의 신체·서비스 부양 및 고연령 노인에 대한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는 노인보다 오히려 자부의 의식이 현저히 전통적이었다.

부양태도의 세대간 불일치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부에 비해 노인의 의식이 더 전통적인 경우는 주로 저연령·저소득 자부의 시부에 대한 부양을 중심으로 보편적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연령 자부들의 경제적 / 신체·서비스 부양 및 고학력 자부들의 경제적 부양, 세대관계가 안좋은 자부들의 정서적 부양, 그리고 시부에 대한 정서적 / 신체·서비스 부양에 있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만며느리가 노인을 신체수발하는 경우와 연로한 노인을 정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엔 오히려 노인보다 자부의 태도가 훨씬 더 전통적이었다.

(연구문제 3): 부양행위의 세대간 인지불일치

자부와 노인을 비교할 때, 부양태도에 있어서는 자부보다 노인이 더 전통적이었지만 부양행위에 있어선 노인이 인식하는 바의 수행보다 자부 스스로가 밝히는 바의 수행이 더 적극적이었다. 즉, 노인과 자부가 말하는 부양수행은 모두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부의 부양수행에 대하여 노인은 자부가 밝히는 것보다는 소극적인 부양수행이라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부가 인지하는 바의 수행 가운데서는 정서적 부양이 가장 적극적이고 경제적 부양이 가장 소극적이었음에 비하여 노인이 인지하기로는 신체·서비스 부양이 가장 적극적이고 경제적 부양이 가장 소극적이었다. 부양수행을 둘러싼 세대간 인지차의 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이었지만 하위차원별로는 일관된 방향이 아니어서, 신체·서비스 부양 그리고 특히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는 자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양에 있어선 오히려 노인의 인식이 다소 더 적극적이었다. 여하튼, 부양행위를 둘러싼 노인과 자부의 인식의 전체적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으나($p < .001$)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부의 부양수행이라는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노인과 자부는 적지 않은 세대간 인지차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양수행과 관련한 각자의 인식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부의 인식과 노인의 인식 사이의 불일치의 양상 및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의 수와 노인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의 수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위차원별로는 상반되는 차이가 나타나서, 정서적 부양과 신

체·서비스 부양에 있어서는 노인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들보다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들이 더 많았음에 비하여 경제적 부양에 있어선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들보다 오히려 노인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들이 다분히 많은 대조를 나타냈다.

먼저, 노인보다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의 학력이 낮고 상속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의 소유재산이 적고 노인의 외출빈도가 낮았다. 이 경우 하위차원들별로는 유의미한 어떠한 요인들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부보다 노인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성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위차원별 특성 가운데 한 가지-즉,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에 대한 신체·서비스 부양-가 확인되었다.

요컨대, 노인에 비해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경우는 주로 저학력이고 재산이 없어서 상속도 예정되어 있지 않고 외출도 안하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을 신체수발하는 경우에는 자부에 비해 오히려 노인의 인식이 현저하게 긍정적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는 단순히 분석결과가 있는 그대로 제시되었을 뿐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의 주요 논제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첫째,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부양자가 보유하는 의식과 피부양자가 보유하는 의식 사이에 극명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바에 의하면, 부양자부는 상당히 현대적인 의식을 보유함에 비하여 피부양노인은 상당히 전통적인 의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양가족내에서 자부의 현대적 부양의식과 노인의 전통적 부양의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세대간 부양의식의 차이에 관한 기존의 주장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그나마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는 자부와 노인 모두 그 중요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부여하는 편이었으나, 경제적 부양을 둘러싸고서는 가장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 마치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적 세대를 여실히 반영이라도 하듯 금전적·물질적 공여의 문제가 세대간 의식차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대간 의식차는 저연령·저소득 자부의 시부에 대한 부양을 중심으로 특별히 현저하였는데, 이는 젊은 자부일수록 그리고 소득이 열악한 자부일수록 의식 자체도 현대적이며 또한 시모보다도 시부의 의식이 현저히 더 전통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젊은 자부들의 경제

적 부양 및 신체·서비스 부양과 관련한 태도가 현대적인 경향은 신세대들의 부양가치관이 본유적으로 현대적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자부가 젊을 경우 노인 또한 젊어서 경제적 봉양이나 신체수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득수준이 낮은 자부들의 경우에도 부양을 위한 제반 여건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의식까지도 현대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이어서 시부가 전통적 방식의 정신적 봉양이나 신체수발의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학력 자부들의 두드러지게 현대적인 형태의 경제적 부양양식은 학력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별적 영향(Hendricks and Hendricks, 1981)⁸⁾과 무관하지 않을 듯 싶으며, 자부와 노인간의 좋지 않은 세대관계는 세대간 대인관계의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자부들의 심리적 부양정서의 이반을 가져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머느리의 신체·서비스 부양 및 연로한 노인에게 대한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는 노인보다도 오히려 자부의 태도가 더 전통적이었는데, 이는 전통적 장자부양윤리에 입각한 막머느리로서의 가정내 신체수발의 중요성이 아직도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노인에게 대한 전래의 봉양의식이 아직도 폭넓게 유지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노부모부양에 대한 태도와 행동 사이의 불일치현상은 부양자 세대와 피부양자 세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불일치의 방향 및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세대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불일치의 방향에 있어서, 노인의 경우에는 행태보다 의식이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불일치가 나타남에 비하여 자부의 경우엔 의식보다 행태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불일치가 나타났다. 또한, 불일치의 정도에 있어서도,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불일치에 비하여 자부에게서 나타나는 불일치가 두 배 이상 더 현저하였다. 여하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는 피부양 노인의 경우에는 자부의 부양수행이 자신의 의식 혹은 부양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부양자부의 경우엔 자신의 부양수행이 오히려 자신의 보유의식을 능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자부-노인 사이의 세대간 의식의 불일치는 경제적 부양을 둘러싸고 가장 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세대내 의식-행태의 불일치는 노인세대와 자부세대 공히 정서적 부양을 둘러싸고 가장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부의 입장에서는 정서적 부양에 가장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부양수행에 있어서도 여타의

8) 이는 노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함유된 고정관념의 영향이 저학력 주부들에게보다 고학력 주부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함으로써 고학력주부들은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근거로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형태의 의식을 견지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상욱·양철호(1998, p. 71)를 참조할 것.

차원(경제적 지원 및 신체수발)에 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된 노력을 정서적 부양에 경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정서적 부양에 가장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면 서도 자부의 실제 부양수행이 자신의 기대에 미달하는 정도가 여타의 차원에서보다도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 가장 심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부에게서 발견되는 태도-행위의 불일치현상은 2회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실시된 필자의 선행 연구(1998, 1999)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노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 및 가치관이 이미 상당 부분 퇴색되고 현대적 의식에 의하여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래의 관습이 아직도 비교적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이다. 앞서서도 논의되었듯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적 인식과 실제 행태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는 문화적 관습 및 사회적 기대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필자(1998, 1999)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시부모부양이 진정한 개체의식의 자발적 발로로써 수행되기보다는 자부로서 부여된 가족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수동적 반응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부양여성들의 잠재적 역할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현상임과 동시에 그 같은 역할갈등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불화의 형태로 표면화되고 심할 경우엔 가족해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시적 가능성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자부에 비해서는 다소 덜 하겠지만, 피부양노인 또한 자신의 보유의식과 자부의 행태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자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태가 의식을 능가하는 것이 문제이나, 노인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부의 행태가 자신의 의식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앞서서도 강조된 바 있듯이, 이 같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노인이 보유하는 전통적 가치관 및 높은 부양기대감에 기인한다. 즉, 자부의 부양수행이 노인의 가치관 및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이로 인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제반 스트레스가 자부 세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 가족관계에 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보유의식에 비하여 부양수행이 훨씬 더 적극적인 자부들은 저연령·고학력의 노인들을 둔 저연령·고학력의 자부들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저연령 자부들의 경우 의식 자체는 상당히 현대적이지만 시가에 막 혼입(婚入)하여온 새댁으로서 자신의 의식은 억누른 상태에서 시부모를 위한 정서적 안정이나 신체수발에(경제적 원조는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학력 자부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학력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별적 영향(Hendricks and Hendricks, 1981)으로

인하여 의식은 현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위한 제반 여건(예, 주택, 경제력 등)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부양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⁹⁾ 그리고, 저연령·고학력 노인들의 경우엔 이들이 정서적 안정이나 경제적 능력 혹은 물리적 거동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독립적이고 누구에게도 의존적이지 않아서 이들을 향한 자부의 의식이 워낙 현대적임으로 인하여 의식-행태간의 괴리가 심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보유의식 대비 적극적인 부양수행은 시부에 대한 신체·서비스 부양 및 유배우노인에 대한 정서적 부양에서도 현저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자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모보다는 시부에 대한 신체수발에 훨씬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유배우노인에 대한 정서적 원조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대규모가구를 이루면서 노인을 같이 모시고 사는 저학력 자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보유의식보다도 소극적인 부양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농촌여성들의 전통적 의식 및 대규모가족에 잔존하는 전통적 가치관, 저학력 여성들의 전통적 의식과 결여된 부양여건 등과 일정한 연관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부양노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부부에 대한 재산상속을 예정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보유의식에 비하여 자부의 부양수행이 현저하게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상속을 앞둔 자부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부양수행이 적극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상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예견 혹은 기대가 자부들의 부양수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연령 시모의 경우에도 자신의 보유의식에 비하여 자부의 정서적 부양수행이 현저히 적극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연소한 시모의 의식은 상당히 현대적이면서도 부양수행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저학력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보유의식에 비하여 자부의 부양수행이 모든 차원에서 현저하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피부양자의 교육수준이 의식 및 행태에 대하여 갖는 이중적 양태-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태도는 전통적이면서도 부양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현상-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보유의식 대비 소극적 평가는 저학력 자부들이 신체·서비스적으로 부양할 때에, 그리고 노인 자신이 병약하고 외출을 못하는 상태에서 자부가 정서적으로 부양할 때에도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상노인들의 충족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높은 부양기대감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의 세 번째 논제로는 자부의 의하여 제공된 주어진 부양행위에

9) 학력이 높은 자부들이 태도는 현대적이지만 수행은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필자의 선행연구(1998)를 통해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는 학력에 따른 부양여건의 실질적 차이의 가능성 이외에도 학력에 따른 태도-행위간의 차별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Ibid., Pp. 70-72 참조).

대한 자부 자신의 인식과 노인의 인식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의 인식에 비하여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부 자신은 적극적인 부양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노인이 보기에는 자부의 생각보다는 미진한 수행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부양을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객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지불일치가 존재할 것이라는 앞서의 예측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가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했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인지불일치의 정도가 서구사회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큰 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서구사회에 못지 않을 정도의 인지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한국 노인들의 경우 자부들의 현재적 부양수행을 자신이 과거에 자녀세대에게 제공하였던 부양수행의 대가로 받는 지극히 당연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음을 상기할 때, 인지불일치의 정도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심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자부들이 자신들의 부양수행을 과대평가하기보다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의존도 및 자부들의 부양수행을 과소평가하고, 따라서 인지불일치를 유발시키는 주범은 자부이기보다는 노인일 가능성 또한 높다. 흥미롭게도, 세대간 의식의 사실적 불일치에 있어서는 노인부양의 모든 하위차원을 통틀어서 노인의 태도가 일관적으로 전통적이었지만, 세대간 인지불일치에 있어선 하위차원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정서적 부양과 신체·서비스 부양에 있어서는 자부의 인식이 더 적극적이었지만 경제적 부양에 있어선 오히려 노인의 인식이 더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피부양 노인이 자신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신체수발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이 같은 인지불일치로 인하여 노인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겠지만 이러한 고통은 특히 자부들에게 심각하여서 이들은 각종 부양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 같은 스트레스는 결코 자부의 내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인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반적 가족관계에 투영되어 종국에는 가족부양 기제의 효율성·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지불일치의 유관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인이 저학력이며 재산이 없어서 상속계획도 없고 외출도 거의 안하는 경우 노인보다도 자부의 인식이 현저하게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노인의 여러 측면에서의 무능력이 자부로 하여금 자신의 부양수행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이 양호한 노인에 대한 신체·서비스 부양에 있어서는 자부보다도 오히려 노인의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 거동에 문제가 없어서 자부에게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는 노인들의 경우 자부의 신체수발에 대하여 실제 이

상의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논의된 세 가지 논점들은 모두 본 연구와 관련된 경험적 혹은 이론적 시사점들인데,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누누이 강조되었듯이, 노인부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방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측정속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Bengston and Schrader, 1982). 예를 든다면, 자부는 자신의 실제적 부양행태를 연구자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나름대로의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피부양노인 또한 그 같은 동기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부지불식간에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리학적 구성체를 측정할 경우에는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태학적 구성체를 측정할 경우엔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이 상당 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양을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객체가 동시에 존재하고 측정변인들이 대부분 행태학적 변인들인 경우 일정한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어느 한편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양편에게 동일한 혹은 대등한 질문을 행함으로써 대조·수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쌍방적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일방적 자료의 경우 자료의 일관성 및 정확성에 대한 교차확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과 달리, 쌍방적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수집과정에서 수시로 교차확인을 시도함으로써 응답내용의 진위 및 신빙성을 재차 검토하고 측정속성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자부와 노인의 응답내용이 상이할 경우 양편 혹은 어느 한편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케어문기를 행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조사대상자에 의하여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부정확하고 일관성을 결여하는 자료는 측정변인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양질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확보가 어떠한 종류의 자료분석에 있어서도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교차확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은 일방적 자료가 지니는 측정속성의 문제점에 대한 방법론적 경고(Bokemeier and Monroe, 1983; Riley, 1983; Gubrium, 1988)를 상기할 때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며, 바로 이 같은 경고에 충실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가 지니는 주요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까지 논의된 사항들은 이론적·경험적이든 혹은 방법론적이든 간에 모두 본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 시사점들인데, 앞서서도 강조되었다시피 본 연구는 학술적 의미 이외에 임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노부모부양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부양제공과 관련하여

여 부양자-피부양자가 지나는 의식 및 행태는 '가변적'이라고 하는데(Haley et al., 1987; Scharlach, 1987; Stephens et al., 1988), 이 점에서 볼 때 세대내·세대간 불일치에 대한 학술적 진단의 결과는 당사자들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집단적 임상개입(clinical interventions)을 위한 실천적 처방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제반 불일치는 부양자-피부양자간의 문제의 주요 근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진단을 가능케 하며, 따라서 문제상황에 있는 개개 가족을 대상으로 그 같은 불일치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카운셀링 등의 개별적 임상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불일치가 특별히 심한 부양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는데, 이는 불일치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개입전략이 대상으로 삼을 목표집단(target groups)이 설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집중적인 집단적 임상개입의 필요성까지도 역설하는 결과인 셈이다. 다시 말해, 집단적 임상개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크라이언트의 대상의 폭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목표집단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는데(Noelker and Wallace, 1985),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목표집단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상개입을 위한 주요 목표집단들을 본 연구에서 논의된 각 연구문제별로 설정해보면, 먼저 세대간 의식의 불일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저연령·저소득 자부가 시부를 부양하는 가족'이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은 자부의 지극히 현대적 의식과 노인의 지극히 전통적 의식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경우이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특히 경제적 부양을 둘러싸고 두드러졌음을 상기할 때, 이들 가족을 위한 임상개입 노력은 물질적 공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의식-행태의 세대내 불일치와 관련하여서는 '저연령·고학력의 자부가 저연령·고학력의 노인을 부양하면서 재산상속을 예정하고 있는 가족' 및 '저학력의 자부가 농촌지역에서 대규모가구를 이루면서 저학력 노인을 같이 모시고 사는 가족'을 목표집단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의식보다 행태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것이 문제이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역으로 의식보다 행태가 지나치리 만큼 소극적이어서 문제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노인에게서보다도 자부에게서 특별히 두드러졌고 또한 정서적 부양을 둘러싸고 현저하였음을 상기할 때, 이들 가족을 위한 임상개입 노력은 자부의 정서적 부양을 중심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세대간 인지불일치와 관련해서 '집안에서만 거주하는 경제력 없는 저학력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선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경우 노인에 비하여 자부의 인식이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인 것이 문제였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발견된 제반 불일치는 그 자체가 문제상황에 개입된 당사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욕구평가(need assessment) 결과로써 임상서비스가 대상으로 삼아야 할 크라이언트가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임상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Friedman and Kaye, 1980). 사실, 위에서 선정된 목표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개입을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면밀한 개입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교과서적 사실에 속한다(Brubaker,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입과정의 복잡성이나 시간 및 경비 등의 문제 이외에도 크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 등 수많은 현실적 제약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문제상황에 있는 어느 한편만을 대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입전략은 비효율적이며 그다지 효과적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본 연구는 웅변해주고 있다. 더구나,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과 관련된 각종 공식적·비공식적 가족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그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인데, 이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별다른 대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내 주부양자인 자부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반 불일치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자부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세대내·세대간 불일치 및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임상개입의 필요성은 한국사회에서 더욱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최소한, 부양자와 피부양자 사이에 제반 불일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진단하고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임상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실증적 진단 및 임상적 개입은 결국 점차 심도를 더해가는 가족내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실한 처방책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